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능형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헝리라  
- 성삼문

(나)  
숨에 왓던 님이 썩여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브리고 어디 간고  
숨속이 허사(虛事)이라 만정 자로 뵈게 헝여라  
- 박효관

(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즈 세슬장즈 ㅁ로다지 여다지에 암들져귀 수돌  
져귀 크나큰 장도리로 썩썩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져  
잇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볼가 헝노라  
- 작자 미상

1. 다음 중 (가)의 시적 화자를 바르게 평가한 사람은?  
① 동호 : 불교의 윤회에 대한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군.  
② 경희 : 이상을 노래한 시일 뿐 현실에서는 그와 다르겠지.  
③ 명진 : 혼자만 푸르겠다는 태도에서 오만함을 느낄 수 있어.  
④ 병태 : 죽음을 초월 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고결함을 지니고 있지.  
⑤ 진철 : '백설'을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표현 능력이 미숙해

2. (가)와 <보기>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헝는것가  
비록애 푸새엿거신들 그 뉘 따해 낫드니  
- 성삼문

- ① 비교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고사를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중의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3. (가)와 <보기>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툰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헝노라  
- 원천석

- ① 유교적 충의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였군.  
② 시적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군.  
③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절의를 더욱 절절하게 표현하였군.  
④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작가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군.  
⑤ 군신유의(君臣有義)라는 유교적 덕목은 사대부에게 두루 퍼져 있는 이념이었던.

4. (다)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흘 구로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등걸에 회초리 나니긋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벋 뵈 싯동  
 궂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  
 궂 부리긋치 쏘족흐신 식누으님 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외궂 궂튼 피쑹 누는 아돌 하나 두고  
 건밧티 멧궂 궂튼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흐시는고.

- ①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②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③ 현실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5. (다)의 종장에 대한 감상 중, 시의 내재적 요소에 따라 비판한 것은?

- 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딱딱 창을 내고 싶었을까?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 ② 당시의 서민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었나 가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야.
- ③ 당시 서민들은 언어를 너무 거칠게 다룬 점이 흠이야.
- ④ 가슴에 달고자 하는 창에 대한 사설이 많아.
- ⑤ 현실의 고달픔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

6. (다)의 초장과 유사하게 상황을 설정한 시구는?

- ①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어라 / 내어놓지 않으면 / 구워서 먹으리
- ② 미쇠로 털릭을 몰아 / 털스로 조름을 바고이다. / 그 오시 혈어시아 /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 ③ 대동강 건너편 고졸여 / 빗타들면 것고리이다
- ④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 는
- 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저즌 형님 온다 /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7.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화자에 대해 나눈 대화로 틀린 내용을 고르면?

<보기>

남성들은 머무름과 떠남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 작가들도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작품을 지었다.

- ① 정연: '탐탐이 괴던'에서 수동적인 여성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어.
- ② 나연: '날 부리고'에서도 엿볼수있어.
- ③ 연우: '자로 뵈게 흐여라'에서 화자가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
- ④ 은정: 임을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심정이 잘 나타난 것 같아.
- ⑤ 수정: 시조니까 화자를 사대부로 정했으면 간절함이 더 강조됐을거야.

8. (가)의 주제와 유사한 시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劑(이제)를 恨(한)흐노라. /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흐는 것가. / 비록애 푸새 옛 거신들 그 님 싸해 낫드니.
- ②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흐엿관디, /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논고. / 우리도 더 燭(촉)불 갖흐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 ③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미라. / 夜光明月(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 님 向(향)흐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잇으랴.
- ④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매라. /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무심(無心)흐 돌빛만 싯고 뵈 빅 저어 오노미라.
- ⑤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흐니 / 蓬萊山(봉래산) 第一峰(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셔 /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홀 제 獨也靑靑(독야청청)흐리라.

**내신형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라  
 - 성삼문

(나)  
 솜에 왓던 님이 썩여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솜속이 허사(虛事)이라 만경 자로 뵈게 흐여라  
 - 박효관

(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즈 세슬장즈 ㅁ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  
 저귀 크나큰 장도리로 썩씩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저  
 잇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불가 흐노라  
 - 작자 미상

1. (가)에서 시적 화자의 신념이 응집된 시어는?

- ① 봉래산                      ② 제일봉
- ③ 낙락장송                 ④ 백설
- ⑤ 독야청청

2. (나)에서 화자의 수동적 태도가 나타난 시어를 모두 고르면?

- ① 간 디 업니                ② 탐탐(耽耽)이 괴던    ③ 날 버리고
- ④ 허사(虛事)이라        ⑤ 자로 뵈게 흐여라

3. (다)와 <보기>의 증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흘 구로지 마오  
 빗에 바든 며느린가 감세 처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등걸에 회초리 나니긋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벗 빈 씻동  
 궂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  
 곱 부리긋치 쏘족흐신 식누으님 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외곶 궂튼 피쑹 누논 아들 하나 두고  
 건밧티 멧곶 궂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흐시는고.

- ①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사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시상이 확대되고 있다.
- ③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 ④ 삶의 고통을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서술적·나열적 구성으로 형식의 파격을 보여 주고 있다.

4. (가)의 시어를 풀이한 것 중 옳은 것은?

- ① ‘이 몸’: 화자가 부정하는 존재
- ② ‘봉래산’: 죽음
- ③ ‘낙락장송’: 화자의 절개
- ④ ‘백설’: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함, 참된 가치
- ⑤ ‘독야청청’: 화자의 독립 의지

5. (다)의 내용으로 보아 현실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의 마음’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지 간단히 쓰시오.

6. (다)와 같은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모의 정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 ② 국문학의 산문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
- ③ 평시조의 고유한 형식을 전면 거부하였다.
- ④ 평시조의 관념적 경향을 극복하고 있다.
- ⑤ 서민적 소재를 일상어로 형상화시켰다.

7. (다)에서 ‘창(窓)’의 상징적 의미를 20자 이내로 쓰시오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꿈에서 깨고 난 후 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 ② 임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허망함을 느낀다.
- ③ ‘꿈’은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임을 만남으로써 갈등이 극복되었다.

9. (가)에서 대비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10. (가)~(다)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화자의 강한 절개를 느낄 수 있어.
- ② (나)에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돼.
- ③ (가),(나)와 (다)는 형식상 차이가 있어.
- ④ (다)에서는 해학성이 돋보여
- ⑤ (다)에서는 참신한 발상을 찾을 수 있어.

# 정답 및 해설

## 수능형

1) <답> ④

2) <답> ③

<보기>는 '고사리'를 활용하여 작은 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강인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고 (가)는 '낙락장송'을 활용하여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3) <답> ④

(가)와 <보기>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시조에서 화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 ④는 적절하지 않다. 두 시조는 화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표현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4) <답> ①

(다)는 세상살이의 고달픔으로 인한 답답함을, <보기>는 시집살이의 고통으로 인한 한탄을 담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에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와 <보기> 모두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다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⑤ (다),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보기>는 자신을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에 비해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내세우고 있다.

5) <답> ①

내재적 비판이란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②~⑤는 외재적 요소에 따른 감상이다.

6) <답> ②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7) <답> ⑤

8) <답> ④

④는 가을 강에서 낚시를 하며 유유자적하는 내용이다.

①②③⑤는 사육신의 시조로 세조에 대한 절개를 노래한 내용이다.

## 내신형

1) <답> ⑤

2) <답> ②,③

3) <답> ①

(다)와 <보기>의 중장은 유사한 소재나 내용을 나열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대립이 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⑤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다분히 해학적이기도 한데, 이러한 수법은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 그리지 않고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당시의 서민 의식과 관계 있다

4) <답> ③

5) <답> 답답한 방

6) <답> ③

사설시조에서도 3장의 형식과 종장 첫 구의 3음절에 대한 형식은 일정하다.

7) <답> 삶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통로

외부 세계와 시적 자아의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8) <답> ⑤

9) <답> 백설, 낙락장송

10) <답> ②